

카자흐스탄 체첸-잉구쉬(Chechen-Ingush)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주(州) 잠블스키(Jambulsk)지역과
카라간다(Karaganda)주(州) 아드바살(Adbazal) 지역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KFR(Kazakhstan Field Research) 4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KFR(Kazakhstan Field Research) 4기 훈련팀에서 2006년 12월 28일 - 2007년 1월 18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잠블스키 지역과 카라간다주 아드바살 지역을 중심으로 체첸-잉구쉬족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다. 조사팀은 강주미(생명식품과학부 '05), 권선형(국제어문학부 '05), 고은애(국제어문학부 '02), 김경민(글로벌리더십학부 '06), 김국화(글로벌리더십학부 '06), 김준식(글로벌리더십학부 '06), 이명혜(생명식품과학부 '05)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다.

I. 조사 설계서

1. 조사의 필요성

카자흐스탄에는 약 130개의 종족이 살고 있고 각 종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종족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기 보다는 서로 흡수 동화되어 그들 종족만의 정체성은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민족과 종족이 달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이슬람 문화권 아래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종족 선교는 여전히 카자흐스탄과 그 주변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중요한 전략임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비교적 개방적이며 현재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는 카스피(Caspi)해(海) 석유개발은 카자흐스탄으로 하여금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카자흐스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다면 그들은 카자흐스탄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국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수 민족에게 희미해진 종족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들을 종족의 리더와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시킨다면 그들이 카자흐스탄과 각자의 본 국을 복음화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리서치 팀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조사하는 가운데 잉구쉬(Ingush) 종족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잉구쉬 종족은 체첸(Chechen) 종족과 이름만 다를 뿐 생활양식 및 언어 등, 문화가 거의 유사하고 그들 스스로도 서로를 한 형제로 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본 리서치 팀은 체첸과 잉구쉬 종족을 함께 조사하기로 하였다. 체첸-잉구쉬 종족은 원래 북카프카즈 지역에 각자의 나라를 가지고 살았지만 1944년에 강제 이주 당한 후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오고 있다. 카자흐스탄 내 체첸-잉구쉬 종족의 영적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넘어 북카프카즈 지역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 조사의 목적

- (1) 카자흐스탄에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을 조사하여 이들의 역사와 생활모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위 종족의 종합성과 실제성을 파악한다.
- (2) 본 조사를 바탕으로 체첸-잉구쉬 종족에 적합한 선교전략과 중보기도 전략을 생산한다.
- (3) 또한 이를 한국 교계와 선교계에 알려 중보기도자와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를 동원한다.

3. 조사지역

- (1)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주 잠불스키(Jambulsk) 지역
- (2) 카자흐스탄 카라간다(Karaganda)주 아드바살(Adbazal) 지역

4. 조사대상

- (1)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잠불스키 지역의 체첸종족
- (2)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 아드바살 지역의 잉구쉬종족과 체첸종족

5. 조사기간 : 2006년 12월 28일 ~ 2007년 1월 18일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소 KFR 훈련생 7명

- 1) 이명혜 (05 생명식품과학부) 디렉터/예배부원
- 2) 고은애 (02 국제어문학부) 예배부장
- 3) 김준식 (06 글로벌리더십학부) 미디어부장
- 4) 김국화 (06 글로벌리더십학부) 총무부장
- 5) 김경민 (06 글로벌리더십학부) 문서자료부장
- 6) 강주미 (05 생명식품과학부) 미디어부원
- 7) 권선형 (05 국제어문학부) 문서자료부원

(2) 통역자 2명

- 1) 을가 김(한국어 통역) - 카라간다 은혜교회
- 2) 시몬 김(영어 통역) - 카라간다 은혜교회

7. 조사방법

- (1) 예비 조사

서적,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

(2) 현장 조사

- 1) 관찰 조사
- 2) 인터뷰 조사(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 ① 알마티시의 체첸 센터²장 인터뷰, 아드바살과 아스타나(Astana)를 총괄하는 체첸 리더 인터뷰, 현지 사역자 등 인터뷰
- 3) 문헌 조사
 - ① 박물관 방문 자료조사
 - ② 현지에서 지역 지도와 종족 관련 서적 구함

8. 조사의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 보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의 최근 현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 카자흐스탄과 북카프카즈(North-Caucasus)지역은 물론 체첸-잉구쉬 종족에 대한 선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이 조사보고서는 체첸-잉구쉬 종족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카자흐스탄과 체첸-잉구쉬에 대한 종합성과 실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주로 현지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장감을 더하며,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및 체첸-잉구쉬 종족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 있어 몇가지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힌다.

먼저 다양한 계층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현지에 있는 종족의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나 보다 다양한 계층을 조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다음 조사 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을 조사한다면 종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전 조사한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³에 의하면 우진아가쉬(Uzinagash) 지역이 잉구쉬족의 집성촌이라고 나와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²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수 민족들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보전하기 위해 각 민족마다 문화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 알마티에는 체첸-잉구쉬 센터 이외에도 여러 소수민족의 센터들이 한 건물에 모여있다.

³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화될 수 없는 종족 집단.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1985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많은 잉구쉬족이 잉구세티아(Ingushetia)⁴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통역자를 만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인터뷰 조사 시 질문자와 답변자의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지어와 한국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통역자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⁴ 북카프카즈에 있는 잉구쉬 종족의 공화국 명칭이다.

II. 들어가는 말

카자흐스탄에는 130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 이 소수민족들 중에는 체첸과 잉구쉬라는 종족도 있는데, 그들은 원래 한 민족이었고 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1944년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 전까지 북카프카즈에 거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북카프카즈 지역에 위치한 잉구쉬 공화국과 체첸 공화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 민족보다는 같은 민족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감이 덜하고 마음이 더 쉽게 열린다고 알려져 있다⁵.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현지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크고 이는 작은 민족 분쟁 가운데 있는 북카프카즈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점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에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의 복음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카자흐스탄 교회에서 체첸-잉구쉬인에게 종족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들을 영적 리더로 양육하여 북카프카즈로 파송한다면 체첸-잉구쉬인은 그들의 고향인 북카프카즈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리서치 팀은 이 같은 사실과 더불어 2007년 겨울 리서치를 통해 카자흐스탄 선교에서 반드시 염두 해두어야 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종족들이 각 종족만이 갖고 있던 특징들을 잃어버린 채,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자흐스탄 내에 있는 소수민족의 생활모습은 종족에 영향을 받기보다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면서 도시와 시골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특색이 더욱 선명해 지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국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종족 선교와 더불어 지역 선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자료와 현지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체첸-잉구쉬 종족의 전통문화와 생활모습을 보고하면서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전반적인 경제적, 정치적 흐름과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체첸-잉구쉬 종족과 북카프카즈 지역의 복음화를 기대하며 종족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선교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본 조사 보고서가 카자흐스탄을 복음화시키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또 보고서를 통해 체첸-잉구쉬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⁵K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였다.

III. 체첸-잉구쉬(Chechen-Ingush)족 현황

1. 카자흐스탄 개관⁶

카자흐스탄에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 수 많은 종족이 그들 종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의 영향권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 문화가 그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첸-잉구쉬 종족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카자흐스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일반개요



<지도 III-1> 카자흐스탄 지도



<그림 III-1> 카자흐스탄 국기

카자흐스탄의 정식 명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이다. 18세기 이래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1991년 구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일원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연방,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접하고, 서쪽으로 카스피해에 면하고 있다. 국가 면적은 272만 km²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수는 1,518만 명(2005.7) 정도 이다. 비교적 적은 인구수에 비해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민족

⁶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사이트(<http://www.mofat.go.kr>) 자료를 참고 하고, 편집하였다.

구성은 카자흐인(855만, 57.2%), 러시아인(407만, 27.2%), 우크라이나인(47만, 3.1%), 우즈베크인(40만, 2.7%), 독일인(24만, 1.6%), 타타르인(23만, 1.6%), 위구르인(22만, 1.5%) 등이다.

(2) 역사와 문화

카자흐스탄은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와 산물을 주고받는 통로의 한가운데에 있어 민족의 이동과 흥망성쇠가 복잡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주 민족인 카자흐족은 과거에 유목생활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상공업과 농업에 종사하였고, 종교는 이슬람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목민의 법을 따랐다. 제정러시아는 17세기 중반에 시베리아 정복을 거의 끝내고 많은 요새를 구축해서 카자흐족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동시에 이들 요새를 중앙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18세기 초 동방의 침략에 고생하던 카자흐족은 차츰 러시아의 보호를 원하여 1740년, 그들 중 일부가 러시아의 속국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1917년 카자흐스탄 민족주의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면서 자치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1925년에는 카자흐스탄 자치공화국으로 출범하였고 크질오르다에 수도를 두었다. 1936년에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되었으며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독립을 선언하여 현재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되었다. 여러 차례 수도가 바뀌었는데 1929년에는 알마티로 1997년 말에는 아스타나(현재 수도)로 옮겨졌다.

러시아가 지배하기 이전에 카자흐인은 유목생활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배 때문에 더 이상 전통적인 유목문화를 유지할 수 없었고 다른 소련연방과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 후 소비에트 공화국의 붕괴로 카자흐스탄의 문화는 다시 자리를 찾는 듯 하였으나 외부세력으로부터 들어온 대중매체로 인한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3) 정치와 사회

현재 카자흐스탄의 정치구조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소비에트 영향 아래 공산국가 형태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1년 독립한 후 현재까지도 간판만 민주주의로 바꾸었을 뿐 과거의 공산국가적 정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12월 독립 이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경제개혁 등에 몰두하여왔다. 1998년 제정된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1999년 1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나자르바예프는 79%의 지지율로 재선되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4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도 나자르바예프는 92%의 지지율로 삼선에 성공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외교는 현실외교로서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일관되게 러시아연방과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자적인 군대를 가졌으나 장비와 군요원의 부족으로 1992년 맺은 러시아연방과 카자흐스탄 간의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에 의해 서로의 지원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제정러시아 시대의 중앙아시아는 문맹률이 98%였으나 카자흐스탄은 학교교육의 확충으로 0.2%(1979), 2%(15세 이상, 1989)로 낮아졌다. 학교 수는 초등학교 88개, 중고등학교 247개, 대학교 63개에 이른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알마티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국립대학(10개 주간학부, 6개 야간학부, 6개 통신교육학부)과 카자흐공과대학(11개 학부와 각 기업에 몇 개의 분교) 등이 유명하다. 이외에도 농업, 의학, 교육, 광산, 수의 등의 전문학교가 있다. 또한 1946년 설립된 카자흐 과학아카데미와 우주과학연구소에는 소속된 연구소가 40여 개가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외에 여러 언어로 방송된다. 도시인구의 비율은 55.8%(2001)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주요 도시로는 알마티, 카라간다, 외스케멘(Öskemen), 아스타나 등이 대표적이다.

(4) 경제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개방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 원유가스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2005년 경제 성장률은 9.2%, 2006년 경제 성장률이 8.7%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원유자원 매장량은 세계 7위 수준이며, 우라늄, 금, 은, 구리, 아연, 망간 등도 세계 10위 내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총 생산(GDP)은 2004년 301억불, 2005년 561억불을 달성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30년까지 국민소득 6만 불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정책을 펴고 있다.

(5) 종교

1) 이슬람

중앙아시아 대부분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슬람교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역시 이슬람교적 가치 체제와 관행들이 70년간의 공산 지배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특히 독립 이후 민족 의식의 성장과 함께 이슬람교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230여 개의 이슬람교단체와 1개의 이슬람교 대학이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이슬람교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그 강도가 약하고 세속적인 편이다.

1726년경 청나라에 위기를 느끼고 있던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합병을 요청했고 1731년에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합병된 이후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을 거치면서



〈사진 III-2〉 이슬람 사원

카자흐스탄 땅은 러시아 정교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751년의 탈라스 국제전 이후, 중앙 아시아에 살던 투르크 족들은 이미 이슬람화 된 후이지만 거의 200년 가까운 러시아와의 동거로 인해 이 지역에서 이슬람교의 영향력은 극도로 약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카자흐 사람 대부분은 스스로 무슬림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통 무슬림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의 근본주의적

이슬람과는 다른 생활 이슬람으로서의 양상이 나타난다.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 민족 우선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 아스타나의 경우에도 새로 건립되는 신도시 중앙에 웅장한 모스크가 건축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무슬림들은 수니파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이슬람의 종교관습을 따르긴 하지만 열성적인 신자는 별로 없다. 알마티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남부와 서부에는 이슬람교의 5대 기둥이 되는 금식, 기도, 믿음 고백, 자선, 순례 등을 하며 특별히 라마단 기간이나 기도 중에 금식을 수행하는 무슬림들이 많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결혼이나 장례식(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할례 등도 종교적으로 거행한다. 그러나 카자흐인이 훨씬 많이 살고 있는 공화국 북부와 동부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습들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2) 러시아 정교회

카자흐스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들자면 이슬람교와 함께 정교회를 들 수 있다. 개신교의 선교 활동을 막기 위한 신 종교법을 구상할 때 러시아 정교 측에서는 러시아인에게 포교 활동을 금지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족 및 종교 화합 정책으로 인해 수도 아스타나에도 새로운 정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3) 개신교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선교사와 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알마티의 경우 한인 선교사 협의회 회원 수가 60 명을 상회하고 있다. (2003 년 초) 한국 선교사 이외에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와 목회뿐 아니라 NGO 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미국 한인은혜교회는 모스크바(Moscow)에 은혜 신학교를 세웠다. 이 곳 출신 현지 사역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주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45 년 이상 카자흐스탄 땅에서 믿음을 지켜온 여러 개신교회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보안 개정안을 개정하여 개신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 등록된 교회를 금지하고 이런 활동의 지도자나 참석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락을 받은 선교사들의 활동도 제한을 둔다. 또한 선교사들이 사용하는 서적도 검열을 받으며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외국인일 경우 추방하는 등 개신교를 점차적으로 억압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Photo by Hyeon

〈사진 III-3〉 카라간다 은혜교회



Photo by Hyeon

〈사진 III-4〉 러시아 정교회

(6) 요약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크고 약 1,518만명 (2005.7)의 인구가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로서 많은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성을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그 국가적 중요성은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러시아의 속국이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 자치공화국이 되었고 1991년에는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오랜 지배로 인해 그들 고유의 문화적 활동은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수입 영화와 TV드라마 등 대중 문화가 대신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후에도 공산당 시절의 지도부는 계속 집권하고 있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주도한 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Nazarbayev)는 총 3번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1세기 이후 카자흐스탄은 개방정책과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종교로는 이슬람교,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등이 있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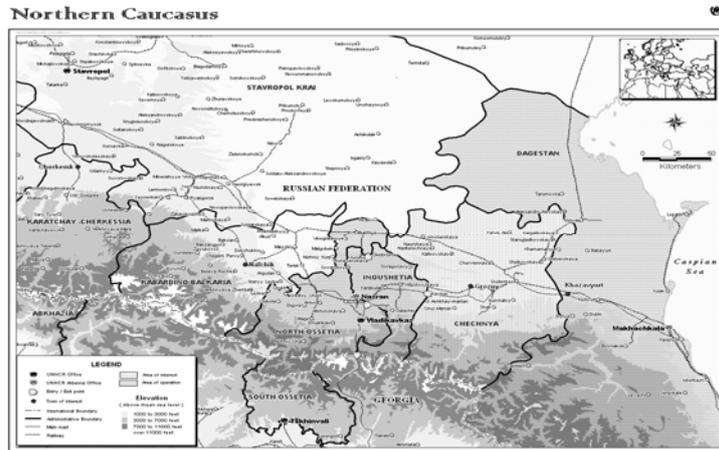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를 복음화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복음화가 진전된 상태이고 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제 성장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카자흐스탄은 주변국들을 복음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2. 종족개관 - 체첸-잉구쉬

(1) 북카프카즈

체첸-잉구쉬 종족의 본 거주지는 지리적으로는 북카프카즈, 국가적으로는 러시아 내에 있는 체첸, 잉구쉬 공화국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의 체첸-잉구쉬인은 1944년 강제이주와 그 이전부터 오랜 러시아와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게 된 이민족이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는 북카프카즈의 체첸-잉구쉬 공화국과 구분지어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카자흐스탄 체첸-잉구쉬족의 문화와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북카프카즈의 일반개요와 분쟁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도 III-2> 북카프카즈 지도

1) 일반개요

카프카즈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지역이며 소아시아 북서쪽,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비옥한 평원지대와 저지언덕, 그리고 고산지대로 크게 세 종류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대륙이동으로 인해 지진활성 지역으로 구분되는 등 여전히 강도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 세기에 걸쳐 많은 이들이 산악지대에서 평원지대로 이주했고 농업이 집단화되었고 구 소련연방 경제에 더 의존적인 경제체제로 변해갔다. 카프카즈 지역에는 러시아 연방 내 공화국 7개(Dagestan, Chechnia, Ingushia, North Ossetia, Kabardino-Balkaria, Karachai-Cherkessia, Adygea)와 그루지아 자치공화국 2개(South Ossetia, Abkhazia), 총 9개의 공화국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민족은 언어적으로는 이베로-카프카즈(Ibero-Caucasian), 인도-유럽(Indo-European), 알타이(Altaic) 민족으로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된다. 이베로-카프카즈 종족 하부에는 아브하지아, 키르카시안, 다게스탄, 베낙(잉구쉬, 체첸)등이 있고 인도유럽민족에는 이란계통, 슬라브인, 아르메니안이 있으며, 알타이 민족으로는 아제리, 발카르, 카라차이, 쿠믹, 노가이, 트르크멘, 칼묵이 있다. 북카프카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민족들은 모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 분쟁

북카프카즈 지역은 러시아연방 이슬람 세력의 본산지로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연방주체들의 밀집 지역이자 대표적인 분쟁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분쟁이 있는데 첫째는 영토 영유권에서 기인한 북오세티아-잉구세티아 분쟁, 둘째는 민족주의 분쟁 및 분리주의 운동 성격이 짙은 체첸-러시아 전쟁, 마지막으로 소수민족 차별해소와 권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발카르 민족 독립운동이다. 여기서는 잉구쉬와 체첸을 둘러싼 체첸-러시아 분쟁과 북오세티아-잉구세티아 분쟁을 다루기로 한다.

① 체첸-러시아 분쟁⁷

● 요점 및 의의

체첸 분쟁의 요점은 체첸의 탈 러시아 민족주의와 러시아의 연방체제 사수전략의 대립이다. 체첸 공화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대내외적 명분을 갖고 있으므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은 러시아내 다른 민족공화국들의 주권확보투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첸 공화국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체첸 지역은 러시아에 있어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⁷ 더 자세한 전쟁의 전개과정은 다음 논문 참조할 것.

황선우, 김선래(2006), “북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체첸 공화국을 중심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정부는 체첸 공화국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쟁은 체첸 공화국과 민족, 정치, 경제, 종교적 요소까지 결합되어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역사적 배경 및 전개과정

체첸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차로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체첸 러시아 분쟁의 역사는 체첸 인접국인 다게스탄 및 카바르딘 영주 세력들이 이슬람 포교전략을 통해 체첸을 지배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다게스탄과 체첸과의 계속된 갈등 속에서 당시 제정 러시아 정부는 반 체첸 전략을 구사하고 다게스탄과 카바르딘 영주들의 입장만 옹호하였는데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체첸인의 반감과 불신을 사게 되어 체첸-러시아 분쟁을 일으켰다.

체첸 분쟁에는 조하르 두다예프⁸의 강한 민족주의 노선에 의해 주도된 1차 분쟁과(1994년 12월 - 1996년 8월) 바사예프가 이끄는 체첸 강경파들의 게릴라전에 의해 발발한 2차 분쟁(1996년 9월-2001년 4월)이 있는데 1차는 체첸 공화국이, 2차는 러시아 정부가 승리하였다.

- 분쟁의 갈등 요인

체첸 분쟁의 갈등 요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 환경적 측면에서 1차 분쟁은 국제적으로 탈냉전 시기의 민족 해방의 노력으로 볼 수 있고, 2차 분쟁은 국제사회 문명의 충돌 및 테러활동을 일삼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적 관점에서 1차 분쟁은 골수 민족주의자였던 두다예프의 민족해방에 대한 열망이 원인이었고 2차 분쟁 시는 체첸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1차 분쟁 시 러시아의 사회여론은 대체로 전쟁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체첸의 사회여론은 체첸 중앙정부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2차 분쟁 시는 이와 반대로 러시아 주민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의 명분에서 푸틴 정부의 체첸군사작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체첸 주민들은 지난 전쟁의 경험들로 인해 전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② 북오세티아-잉구세티아 분쟁

- 요점 및 의의

1957년부터 시작된 북오세티아와 잉구세티아 사이에서 일어난 영토 분쟁이며

⁸ 체첸 민족주의자의 이름으로 체첸공화국의 1대 민선 대통령이자 체첸 러시아 1차분쟁의 주역이다.

북카프카즈의 3대 분쟁 중 하나이다. 러시아 정부는 잉구쉬인이 러시아 영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잉구쉬인은 그들이 강제이주 당하기 전까지 살고있던 땅인 프리고로드니(Progorodnyi)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산발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잉구쉬인 중 많은 수가 이 분쟁에 관심이 많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분쟁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분쟁이 평화롭게 끝난다면 고향을 잃어버린 다수의 잉구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 역사적 배경 및 전개 과정

1936년 소련 내 체첸-잉구쉬 자치공화국이 성립되었고, 1944년 잉구쉬인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한 이후 그들이 살았던 프리고로드니 지역이 북오세티아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1957년 스탈린 사망 이후 잉구쉬인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 프리고로드니 지역에서 오세티아인과 잉구쉬인 사이에 발생한 민족갈등이 바로 오세티아-잉구세티아 분쟁의 시초이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양 민족간에 여러 갈등과 충돌이 있었지만 잉구쉬인은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1991년에는 잉구쉬인이 프리고로드니 지역의 약 60%를 차지하기도 했다. 1992년 러시아는 그들의 영토 내에 다른 지역으로 새롭게 잉구쉬인을 정착시키려고 했지만 이에 반발하여 잉구쉬는 북오세티아 내 잉구쉬 영토를 반환하기를 요구하였다. 이후 잉구쉬 민병대와 오세티아인 간의 무력충돌은 계속되었고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전쟁에 러시아 군대가 참여하면서 많은 잉구쉬인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했다. 러시아군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잉구쉬와 한 형제 같은 체첸으로 하여금 잉구쉬를 도와주도록 하여 러시아가 체첸을 침공할 수 있는 구실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 분쟁의 갈등 요인

양 민족간의 문제는 영토 영유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아직까지 현상 유지 중이고 사건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3) 체첸-잉구쉬인이 갖는 북카프카즈에 대한 의식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체첸-잉구쉬인은 그들이 강제이주 당했을 때 카자흐인이 베풀었던 호의와 친절에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카자흐스탄을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체첸인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북카프카즈에 있는 땅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보다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 측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체첸-잉구쉬인은 북카프카즈에 많은 친지와 친구가 있다. 그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며 종종 북카프카즈 친척을 방문하곤 한다. 한 잉구쉬인과 인터뷰한 결과, 북카프카즈를 한 번 방문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000 정도라고 한다. 현재 많게는 5대에 걸쳐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는 가정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카자흐스탄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카프카즈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인터뷰 결과 대다수는 북카프카즈 땅을 그리워하며 기회가 된다면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4) 요약

카프카즈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다. 이 지역에는 체첸과 잉구쉬를 포함한 여러 민족들이 9개의 공화국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대부분 모국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또 북카프카즈 지역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꼽히기도 한다. 체첸 공화국은 러시아에게 정당한 민족 해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체첸의 독립을 허락하면 주변 다른 민족들이 민족해방운동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뜻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잉구쉬 공화국과 북오세티아 사이에서 발발하는 분쟁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체첸-잉구쉬 종족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정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절망적인 그 분쟁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자. 체첸-잉구쉬와 북카프카즈를 위한 중보자들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분쟁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쟁들이 오히려 선교적 접촉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2) 체첸 - 잉구쉬 종족현황

현재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은 과거에 러시아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공화국을 이루며 살다가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한 종족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는 북카프카즈의 문화와 카자흐스탄의 문화가 섞여 있다. 그리고 이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모습에서 드러나는 이슬람의 영향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북카프카즈,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가 각기 존재하지만 이것들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혼합되어 이 종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리서치 팀은 카자흐스탄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문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서치 기간 동안 머물렀던 두 지역, 우진아가쉬와 아드바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체첸-잉구쉬 종족의 역사와 현재 생활 모습을 밝히고 이들이 갖는 이슬람적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1) 지역 개관

① 우진아가쉬



〈사진III-5〉 우진아가쉬 정경

우진아가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잠불스키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마을이다. 우진아가쉬라는 단어는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곳에는 큰 나무가 많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우진아가쉬라고 했다. 우진아가쉬에는 약 35,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지만 상점을 운영 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는 일에도 종사한다.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알마티 시내까지 가서 회사를 다닌다. 2006년 말에 이 지역의 아킴⁹이 새로 바뀌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조사결과 잉구쉬인은 1986년¹⁰,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북카프카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는 이 지역에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아드바살¹¹

아드바살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 내에 있는 지역으로 약 28,000명이 살고 있다. 아드바살의 ‘아드’는 말(馬)이라는 뜻이고, ‘바살’은 시장을 뜻한다. 즉, 아드바살은 말을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이 지역에서 말을 많이 키웠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드바살에는 자바이란 이름을 가진 강이 있어서 이 유역으로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대부분은 카자흐족이었으나 1920년-1940년 사이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인 중 다수가 아드바살 지역으로 피난을 왔다. 아드바살 지역에 러시아인이 많고 러시아의 문화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940년대에는 체첸-잉구쉬인의 강제 이주로 인해 체첸-잉구쉬인이 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현재는 카작인, 러시아인, 체첸-잉구쉬인 외에도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⁹ 지역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칭하는 말이다.

¹⁰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연방 정책이 변화된 해이다.

¹¹ 아드바살 소재 박물관 방문, 박물관장과 아드바살 주민을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편집하였다.

겨울에는 카자흐스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듯이 아침 저녁으로 석탄을 때기 때문에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오염되었다. 연 평균 강수량은 300mm이고,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18.5° C, 6월 평균 기온은 영상 20.5° C이다. 1964년에는 7m21cm의 홍수가 나기도 하였다.

아드바살의 주요 산업은 지역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과 관련된 산업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지만 현재 이 지역 내에 큰 공장이나 회사는 없다. 젊은이들은 도시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중 장년층은 상점을 경영하기도 한다.

주요 시설로는 병원이 2개, 초등학교 5개, 전문대학이 4개, 종합대학 1개가 있다. 아드바살에는 기차역이 있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높다. 지역 내 교통편으로는 버스와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종교 기관으로는 개신교회, 모스크, 러시아 정교회, 카톨릭 교회가 각각 하나씩 있다.

2) 강제 이주 역사

소련 연방 시절 스탈린은 정권을 잡으면서 2차 세계대전 중 체첸-잉구쉬인이 나치 독일에 부역을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1944년 2월 23일 체첸-잉구쉬인을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 시켰다. 이 사실은 후에 체첸-러시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때 강제 이주자 45만 명 가운데 22만 명이 강제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약 2주간의 강제 이주 기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이들은 카자흐스탄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인은 체첸인에게 주거지와 양식을 제공하는 등 체첸인이 새로운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체첸인이 처음 정착하게 된 곳은 알마티주의 잠블스키 지역과 카라간다주의 아드바살 지역 일대였다. 현장 조사결과 소련 연방 해체와 더불어 잠블스키지역의 체첸-잉구쉬 종족 중 많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아드바살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아직도 체첸-잉구쉬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3) 생활 양식

① 의생활

체첸-잉구쉬인은 그들만의 고유한 전통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면 전통 의상을 입지 않는다.¹² 리즈깡까¹³를 출 때는뿔라¹⁴를 쓰고 추기도 한다. 평소에는 러시아식 모자를 쓴다.

¹² 한국에도 한복이 있지만 한국인들이 항상 한복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¹³ 북카프카즈 지역의 전통 춤을 이르는 말이다.

¹⁴ 체첸인의 전통 모자를 뿔라하고 하고 러시아 전통 모자보다 조금 더 크다.



〈사진III-6〉 체첸인의 전통복

의 전통복

② 식생활

체첸-잉구쉬인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지 않지만 이들에게 고기는 아주 중요한 음식 재료이다. 봄과 여름에는 신선한 고기를 먹고 가을과 겨울에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는다. 전통음식으로는 차필기쉬¹⁵, 갈루스키¹⁶ 그리고 비르¹⁷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통음식은 결혼식이나 특별한 절기 행사에 주로 먹는다. 이들은 평소에 빵과 고기를 주고 먹고 식사 후 차이(홍차)를 즐겨 마신다.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종족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지만 음식 문화는 잘 유지하고 있다.



〈사진III-7〉 갈루스키와 비르



〈사진III-8〉 카자흐스탄 빵

¹⁵ 잉구쉬 전통 빵의 이름이다.

¹⁶ 잉구쉬 전통 고기 요리이다.

¹⁷ 감자와 고기 마늘소스로 만든 음식의 이름이다.

③ 주생활

주거 생활에서 체첸-잉구쉬 종족만의 특별한 특징은 찾을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의 영향으로 집의 형태가 획일적이었는데 그 특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단 요에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새로 건축하거나 아파트에서 살기도 한다.

4) 사회

① 가족구조

● 가부장적 가족구조

전반적으로 체첸-잉구쉬 종족의 가족은 가부장적이다. 물론 가족마다 차이는 있다.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 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자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상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남자의 영향력이 더 크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죽으면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책임지고 다 치러야 하고 그 후에 죽은 남편의 형제 집에서 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첸-잉구쉬 종족은 가부장적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 일부다처제

체첸-잉구쉬 종족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고 그 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얻으려면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 남자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새로운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여자가 불만을 표시할 수 없고, 이 사실에 대해 남편과 아내 모두 당연하게 여긴다.

② 종족 공동체

● 종족 센터

카자흐스탄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소수민족 통제 및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종족 센터를 두고 있다. 체첸-잉구쉬 종족에게도 국가의 지원으로 설립된 종족 센터가 있다. 잉구쉬종족만을 위한 센터는 따로 없었지만 알마티 시에 있는 체첸족 센터가 잉구쉬족까지 관할하고 있었다. 아드바살에도 체첸 종족센터가 있었는데 이 센터는 아드바살에 있는 체첸인뿐 아니라 아스타나에 거주하는 체첸인까지 관리한다고 한다.

- 체첸족 정기적 모임

알마티에서는 체첸인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이 열린다. 체첸인은 그들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이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에서 전통과 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일요일마다 체첸어를 가르친다.

- ③ 리더십¹⁸

본 종족의 리더를 프릿치다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에는 총 16개 지역에 16명의 프릿치다체가 있다. 이들은 주로 종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이 때 종족 행사나 명절을 준비한다. 이 정기적 모임 외에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이기도 한다.

- ④ 타 종족과 이웃간의 관계

체첸-잉구쉬인은 서로를 한 형제로 생각한다. 따라서 같은 종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로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 체첸-잉구쉬 종족은 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했을 때 카자흐인이 베푼 친절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또 강제 이주의 아픈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고려인 역시 성실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체첸 공화국과 러시아는 서로 분쟁 중에 있지만 카자흐스탄에 있는 체첸-잉구쉬인은 러시아인들과 큰 마찰 없이 잘 어울려 지낸다. 어떤 특정 종족과 특별히 사이가 좋거나 나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 ⑤ 여성의 역할

앞서 말했듯이 체첸-잉구쉬종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부장적 특징이 강한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또 여자가 외출할 때에는 남편이나 형제와 동행해야 할 정도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체첸 여성의 역할은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카자흐스탄에 일고 있는 도시화의 물결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 졌고 이러한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여성들의 지위 또한 높아졌다. 물론 지금도 가부장적인 성격이 짙은 가정에서는 손님을 접대 할 때 여자와 남자가 같은 상에서 식사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이 아내의 의견도 존중해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을 갖는 여성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¹⁸ 아드바살의 프릿치다체를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5) 문화

① 춤

리즈깡까지는 북카프카즈지의 전통 춤으로써 결혼식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추는 춤이다. 예전에는 전통 춤을 출 때 입에 칼을 물고 추기도 했다. 체첸-잉구쉬종족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결혼식 마지막날에는 밤새도록 춤을 추기도 한다. 춤을 출 때 한 남자가 어떤 여성이 맘에 들면 그 여성에게 동전을 던져서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체첸-잉구쉬인의 대부분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전 대신에 총을 하늘로 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기도 했다.

② 명절, 축제

● 라마단¹⁹

라마단이란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한다. 천사 가브리엘(Gabriel)이 마호메트(Mahomet)에게 꾸란을 가르쳤던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 된다.

● 쿠르반-하이트 (К у р б а н - Х а н т)²⁰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70일 후에 시작되는 이슬람 축제 기간으로서 체첸-잉구쉬 종족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체첸-잉구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 쿠르반-하이트에는 마호메트를 위해 번제물을 드리고 이 번제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자신들이 가지고 두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③ 결혼과 장례

● 결혼식

카자흐스탄에서 전해지고 있는 결혼 문화 중 한가지 특이한 것은 여자나 여자의 부모가 남자의 청혼을 거절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 여자에게 의사 결정권은 없으며 남자의 부모는 여자의 부모에게 일정량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체첸-잉구쉬 종족 역시 이 결혼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이러한 방법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체첸-잉구쉬 종족만이 갖고 있는 전통 결혼 방식이 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주위 이웃에게 먼저 물어보는

¹⁹ <http://100.naver.com/100> 에서 참고하였다.

²⁰ <http://cafe.naver.com/uzbeknews> 에서 인용하였다.

것이다. 이들은 연애결혼을 하지 않는다. 또 45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이 이후에는 결혼을 잘 하지 않는다.

● 장례식

체첸-잉구쉬의 장례식 역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 장례식에는 여자들이 참석할 수 없으며 장례식 때는 주변에 사는 모든 남자 체첸인이 장례식에 참여한다고 한다. 무덤을 만들 때 관은 사용하지 않고 땅을 2미터 정도 판 후 그 안에 흰 천으로 사람을 싸서 얼굴이 메카를 향하도록 사람을 묻는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에서 메카로 향하는 방향은 서쪽이므로 이들 시체의 얼굴은 서쪽으로 향해있다고 볼 수 있다. 비석에는 꾸란 구절, 이름, 생년월일, 죽은 날짜를 적는다.

④ 손님접대

이슬람 문화권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특징처럼 체첸-잉구쉬 종족 역시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있다. 손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면 자신은 바닥에서 자고 손님은 침대에서 자게 할 정도로 손님을 잘 대접한다. 카자흐스탄의 전통은 손님이 방문하면 그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보드카라는 술을 접대하지만 체첸인은 술을 잘 마시지 때문에 술 대신 총이나 칼을 준다.

⑤ 기타

체첸-잉구쉬 종족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살인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이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 살인자를 용서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꼭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살인자를 자신의 집에서 마주쳤을 때는 죽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보았을 때는 죽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7대 조상까지 이름을 외워야 한다. 또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등 이슬람교가 금기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체첸-잉구쉬의 거의 모든 문화가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체첸-잉구쉬 문화를 따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6) 요약

체첸-잉구쉬인은 1944년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한 후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그들의 전통 문화를 많이 잃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 고유의 전통의상, 음식, 춤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면 보기 힘들다. 주변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 이주 당했을 때 그들을 받아주었던 카자흐인을 좋아한다.

가족형태는 가족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이루고 있고 일부다처제이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적 흐름에 맞춰 여성의 권위도 존중해준다.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전통 언어를 가르치고 체첸-잉구쉬인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주로 그들의 전통 언어를 사용한다. 또 알마티시에서 정기적으로 민족 모임을 갖는다. 그 모임에 모여 그들은 서로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라마단과 쿠르반-하이트는 이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명절이자 축제이다. 요즘에는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아직 체첸-잉구쉬인은 강력한 무슬림이다. 체첸-잉구쉬인은 손님에게 호의적이며 친절하다. 이들을 향한 선교 전략은 이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서로가 신뢰를 쌓고 가까운 친구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3) 이슬람으로 비추어 본 체첸-잉구쉬 종족

1) 체첸-잉구쉬 종족 이슬람의 역사

체첸과 잉구쉬의 이슬람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북카프카즈의 이슬람 기원을 살펴 보아야 한다. 북카프카즈의 이슬람화는 현재의 다게스탄(Dagestan)²¹ 남부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다게스탄에 인접한 지역, 즉 바이나호인²² 거주 지역이 언제부터 이슬람화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역사를 알지 못한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이미 7세기에 아랍인들에 의해 이슬람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나, 16세기 후반에 체첸계 부족들의 이슬람 수용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진III-9〉 꾸란

²¹ Dagestan, 러시아 남서부 북 카프카즈 지방에 있는 자치 공화국이다.

²² 현재의 체첸인 및 잉구쉬인을 가리키며 그 뿌리를 하나로 보고 이르는 말이다.

북카프카즈 지역의 이슬람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수피²³(신비주의)교단의 역할이다. 신비주의 교단이 이 지역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이슬람이 이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민중 차원에서 이슬람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수피 교단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또 북카프카즈 산악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보다는 지역 전통에 근거한 관습법(아다트)을 존중했고 수피들은 이교 전통에 대해 관대했다. 그 결과, 북카프카즈 이슬람교는 그 유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토착 이교 신앙과 공존하고 있다.

둘째, 소련 당국의 가혹한 반종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카프카즈 이슬람의 영향력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후 고르바초프²⁴의 개혁 정책에 따른 종교의 부활로 70년간 지하에 숨어 활동을 계속해 왔던 수피 교단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었다. 동시에 이슬람의 부흥이 진행되었다.

체첸-잉구쉬 종족은 무슬림을 받아들이기 전 샤머니즘적 성격을 지닌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약 300년²⁵ 전에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다. 체첸인은 그들의 기원을 노아에서 찾고 있으며, 잉구쉬인은 자신의 기원을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인 아라랏산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이슬람교계에서 노아는 무슬림이고 알라에게 사도로 부름 받은 최초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다.

체첸-잉구쉬족은 대부분 이슬람교(수니파)²⁶라는 이유로 18세기 이래 러시아에게 탄압을 받았다. 이슬람교를 없애야 한다는 일념으로 광대한 제국 재현을 꿈꾸었던 러시아 제국 여제 예카테리나 2세²⁷가 카프카즈 지방의 무슬림 억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²⁸ 하지만 이에 대항하여 북카프카즈 지역의 종족들(특히 체첸)은 러시아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러시아에 대적하며 이슬람을 수호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것과 같이 체첸과 잉구쉬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기원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민족의 정체성과 북카프카즈 지역의 종교 탄압에 대한 반감은 체

²³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로 금욕과 고행을 중시하고 청빈한 생활을 이상으로 하였으며, 알라와의 합일 경험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한때 이슬람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다.

²⁴ Mikhail Sergeevich Gorbachev, 러시아의 정치가·초대 대통령 (재임 1990.3~1991.12.25)이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하여 소련 국내에서의 개혁과 개방뿐만 아니라, 동유럽민주화 개혁 등 세계질서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고 공산당을 해체했으며 소련의 공산 통치사에 종막을 고했던 인물이다.

²⁵ 체첸인은 300년 전에, 잉구쉬인은 200년 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²⁶ 이슬람교의 정통파. 수니(Sunni)를 수호하는 교파로 이슬람교도의 약 90%를 차지한다.

<http://krdic.naver.com/detail> 에서 인용했다.

²⁷ 제정 러시아의 황제(1729~1796)이다.

²⁸ 후쿠오카 마사유키, 21세기 세계의 종교분쟁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첸과 잉구쉬가 현재까지 이슬람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이다.²⁹

2) 체첸-잉구쉬 종족 이슬람의 특징

체첸-잉구쉬 종족의 이슬람교의 특징은 중앙 아시아 내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이슬람교의 특징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체첸-잉구쉬 종족은 그 기원을 노아로 생각하고 있다. 노아는 무슬림으로서 이슬람교 안에서 최초의 사도로 불리는 등 그들의 정체성과 이슬람은 서로 관련 짓지 않을 수 없게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북카프카즈 지역에 이슬람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따라 지역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체첸-잉구쉬 민족도 자연스럽게 이슬람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부득이하게도 그 후 진행된 러시아의 탄압은 오히려 체첸-잉구쉬의 이슬람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소수민족의 종교가 이슬람이듯 카자흐스탄의 체첸-잉구쉬 역시 이슬람을 믿고 있다. 체첸-잉구쉬는 어릴 적부터 이슬람을 교육받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등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전통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그 두 민족의 전통 문화가 이슬람과 이미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³⁰

이슬람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사하다(SHAHADA)는 본인의 의지로 선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알라)을 제외한 신은 없으며,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사하다는 이슬람의 가장 기본이며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의무들이 그 뒤를 따른다. 두 번째 살라트(SALAH)³¹은 하루에 다섯 번 드리는 의무 예배이다. 세 번째 자카트(ZAKAH)은 무슬림의 연간소득에 대한 의무적 회사(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일)이며 네 번째 단식(SAWM)은 라마단 달, 즉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 동안에 행하는 단식을 말한다. 마지막 하지(HAJJ)는 하나의 연중 행사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여유가 있는 무슬림들이 최소한 일생에 한 번 해야 하는 의무이다. 체첸-잉구쉬 종족도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알고 있고 신앙심이 깊은 무슬림은 정말 알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슬람교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부다처제의 방법으로 해

²⁹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월간 카프카즈 저널’ 에서 발췌하였다.

³⁰ 현지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편집한 내용이다.

³¹ 일상의 다섯 예배 중 파즈르(FAJR)는 새벽에서 해뜨기 사이에, 주호르(ZUHR)는 정오에서 오후 중반 사이에, 아스르(ASR)는 오후 중반에서 해지기 사이에, 마그립(MAGHRIB)은 해진 직후에, 이샤(ISHA)는 밤에서 새벽 사이에 예배를 드린다.

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² 체첸-잉구쉬인도 이러한 일부다처제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며 실제로 우리가 만나 인터뷰 했던 체첸-잉구쉬인도 일부다처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이슬람에는 라마단-하이트라는 특별 기간이 있는데 이는 라마단을 마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70일 후에 쿠르반-하이트 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이슬람에 있어서 큰 명절이다.³³ 체첸-잉구쉬 종족은 이 때에 각각 함께 모임을 가진다. 이 때에는 평소에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하지 못하던 남녀가 함께 한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이성친구의 집에도 방문할 수 있다.

이렇듯 체첸-잉구쉬족의 이슬람 문화는 민족적 특성에 의해 새로운 특징이 추가되거나 변화되었다기보다는 본래의 이슬람 전통과 비슷하게 흐른다고 볼 수 있다.

3) 요약

체첸-잉구쉬의 이슬람 역사는 300년 전 다게스탄의 포교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체첸-잉구쉬인은 노아를 조상으로 여기고 이슬람교에서는 노아가 무슬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첸-잉구쉬인은 자신들이 무슬림이 될 운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종교심은 탄압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카자흐스탄 주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것처럼 체첸-잉구쉬인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윗 세대를 통해 이슬람 교육을 받는다.

이슬람에서는 다섯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이슬람을 잘 믿는 체첸-잉구쉬인은 이것을 지키려 노력한다.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서 이들은 일부다처제도 허용한다. 또한 라마단-하이트, 쿠르반-하이트는 이슬람의 축제인 동시에 체첸-잉구쉬인의 축제이다. 이처럼 체첸-잉구쉬의 이슬람교에는 그들의 민족적 특성이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체첸-잉구쉬인은 이슬람의 영향 아래 놓여 있고 어릴 때부터 가정 내에서 꾸란을 배우며 이슬람적 세계관을 교육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체첸-잉구쉬 종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이들이 북카프카즈 땅의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³² 이슬람 코리아, <http://www.islamkorea.com/> 에서 인용하였다.

³³ <http://www.7daytour.com/asia/> 에서 인용하였다.

IV. 체첸-잉구쉬 종족의 선교 전략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 24:6)

우리가 선교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략, 우리의 지략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 분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마병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위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팀은 앞서 정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체첸-잉구쉬 종족에 대한 선교 전략과 카자흐스탄 지역에 적절한 선교 전략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종족 선교

현재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는 1991년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선교의 문이 열려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전략들이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다. 약 10여 년의 선교 역사의 결과로 그 중 많은 전략들은 열매를 맺고 있다. 많은 이들이 NGO단체와 비즈니스맨의 형태로, 혹은 개인적으로도 카자흐스탄에 들어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선교의 영역들을 감당해오고 있다. 이런 전문인 선교사의 노력으로 총체적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리서치 팀은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 이제까지 행해졌던 전략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체첸-잉구쉬인에 맞춰 그 전략들이 재적용 되기를 기대한다.

(1) 체첸-잉구쉬 종족의 선교 현황

체첸-잉구쉬 종족의 본 거주지는 북카프카즈이다. 현재 그 곳의 상황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체류중이던 선교사도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여 사실상 북카프카즈에 거주중인 체첸-잉구쉬 장기 선교사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체첸-잉구쉬 종족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연유로 선교사들이 이 종족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카자흐스탄에도 체첸-잉구쉬 종족만을 위한 선교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선교 방해요소

1) 체첸 잉구쉬 집성촌 부재

카자흐스탄의 특성 중 하나는 130여 개의 민족이 한 국가에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마을에 특정 종족만 모여 사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물론 극히 일부 종족들은 특별하게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가는 종족 선교는 한 선교사가 같은 지역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 종족들이 카자흐스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며 체첸-잉구쉬인도 예외 없이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만을 위해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비용을 들여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에는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2) 집단 강제 개종 상처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국가들과 공화국들은 기독교로부터 강한 박해를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및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이슬람 강제 개종의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도록 하였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이슬람교를 고수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종교적 갈등은 체첸-잉구쉬인이 러시아와 오랫동안 대치상태로 있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들의 멸시 받고, 무시당한 민족적 상처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다.

(3) 선교전략

1) 종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장소 제공

인터뷰 조사 결과 체첸-잉구쉬 젊은이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을 키우고 더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없다는 선교 전략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첸-잉구쉬인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임장소를 만드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상 부모들은 가능하다면 자녀들에게 체첸-잉구쉬의 전통 문화를 전수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한다. 그들이 이주해 오면서 많은 문화를 잃었기 때문에 민족 문화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많다. 따라서 이 모임장소에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나 영어 등 실용적인 학습도우미의 역할을 통해 젊은이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통적으로 체첸-잉구쉬민족 내에서 여성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인격적으로도 존중 받지 못했

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시작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지는 못했다. 근래에 와서 특히 카자흐스탄의 체첸-잉구쉬 여성들의 위치가 많이 상향되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차별 받고 있는 흔적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모임장소를 만들고,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들과 교제하는 것도 복음의 좋은 접착점이 될 것이다.

2) 종족 리더(프릿치다체)의 활용

프릿치다체는 체첸-잉구쉬족의 지역리더를 뜻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체첸-잉구쉬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보급하는 것이다. 이들이 종족의 중심이 되어 서로 연락하며 모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릿치다체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이들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체첸-잉구쉬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앞에서 언급한 모임을 열 경우에도 이들의 도움을 얻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모임 집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체별 역할

① 현지선교사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한 예로 카자흐스탄에서 위구르 종족을 섬기고 있는 K선교사는 먼저 위구르족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었다. 위구르 종족의 특징은 민족 안에서의 유대감이나 신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타 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배교의 행위는 민족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무슬림을 고집한다. 이에 K선교사는 먼저 이들에게 다가가 신뢰를 쌓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었다. 물론 처음에는 K선교사가 위구르민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거부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2-3년 이내에 선교사를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었다. K선교사는 위구르족 내에서 친구를 한 두 명 만들고 나니 그 다음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계속된 소개를 통해 한 두 명씩 K선교사와 만나 교제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위구르인은 K선교사가 믿을만한 분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후 K선교사는 모임집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오 갈데 없는 위구르여성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몇 년 후부터는 리더를 양육하기 시작했다. 위구르인도 사실 중국 후이족의 후예로 본국은 중국에 있는 이민족이다. 이런 그들 민족의 상황을 알고 K선교사는 그들에게 위구르 말과 민족 정체성

을 가르쳤다. 그들을 민족의 리더로 부르시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본국인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했다. 이제는 이 모임집에 몇 명의 리더들이 일어났고, 이들은 지난 여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단기선교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다. 이러한 선교의 예는 체첸-잉구쉬 선교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 먼저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좋은 선교의 전략을 세운 것이다.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이 많아 체첸-잉구쉬인에게 엄청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2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이다. 그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② 한국교회

체첸-잉구쉬종족과 같은 미전도 종족이 돌아오기 위해서 현지선교사의 노력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한 두 명의 선교사의 노력만으로 수만 명의 체첸-잉구쉬 사람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 종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영적 자원을 제공해줘야 한다. 한국 교회가 교회차원에서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방법으로는 종족입양이라는 것이 있다. 종족입양이란 교회나 선교단체가 미전도 종족을 맡아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기도, 재정적인 후원과 선교사 파송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³⁴ 이 과정 가운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체첸-잉구쉬 종족을 위한 기도 모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는 현재 체첸-잉구쉬족의 실질적인 문제와 필요를 알고 이들을 돕는 손길을 동원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종족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혹은 펜팔친구를 연결하여 계속 교제하고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다. 이 종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 또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체첸-잉구쉬를 위한 중보기도부터 선교사 파송까지 책임져 줄 한국교회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③ 한동대학교

³⁴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 <http://aap.or.kr/new/> 에서 인용하였다.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학생의 약 70%가 기독교인이고 교수들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특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체첸-잉구쉬 종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환경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동대학교 사람들에게 이 종족과 이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민족을 향한 중보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러한 중보기도를 바탕으로 현재 한동대학교에 있는 컴퓨터 사역, 치료 사역 등 수 많은 선교팀이 이 민족에게 찾아가 섬기고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단기팀이든, 중·장기팀이든 학생이라는 신분을 잘 이용해야 한다. 본 리서치 팀이 리서치를 할 때에도 느낄 수 있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누구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무슬림이라 할 지라도 학생들을 박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슬람의 문화는 친절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이다. 특히 체첸-잉구쉬는 외국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민족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가 약간은 세속적이고 민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 처음부터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반발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점은 방학이라는 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체첸-잉구쉬족의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선교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컴퓨터, 영어, 기타, 피아노 등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다. 당장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4) 요약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는 10여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열매들을 맺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성공적 전략을 소개하고 이 전략이 체첸-잉구쉬인에게 재적용 되기를 기대한다. 조사 결과, 체첸-잉구쉬 종족만 모여 사는 마을이 없다는 점과 러시아에 의한 기독교 강제 개종의 역사가 이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첸-잉구쉬인을 향한 선교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본 리서치팀이 제안하는 전략으로는 종족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장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종족의 리더인 프릿치다체와 좋은 관계를 맺어 체첸-잉구쉬 종족에 접근하는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선교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먼저 장기 선교시는 그 곳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전통적인 방법을 권한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특히 종족 입양 방법을 통해 이 민족을 위해 영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체

체첸-잉구쉬 종족을 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영어, 컴퓨터 교실 등을 열어 이 종족의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선교 카자흐스탄 전반

(1) 카자흐스탄의 선교 현황

현재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여 10년이 넘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전략들이 적용되고 실행되어왔다. 그 결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복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교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선교전략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카라간다에 위치한 은혜교회는 카자흐스탄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계 각지에서 카자흐스탄을 맘에 품고 오는 단기, 장기 선교사들에게 숙박과 음식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선교를 한다. 또한 주요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현지인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등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10년 넘게 지속된 선교사의 노력과 현지인과의 협력으로 총체적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이다.

이제 본 리서치팀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교의 방해요소

1) 견고한 진 이슬람

이슬람교는 그 지역마다 성격이 매우 다르다. 강력한 이슬람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앙아시아 이슬람교의 성격은 이슬람 유일신 사상과 민족주의사상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무를 즐기는 등 자유로운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교리를 원칙대로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으나 다분히 세속적인 성격의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인치는 있지만 체첸-잉구쉬인은 비교적 자신들을 철저한 무슬림으로 생각한다. 약 200여 년 전부터 알라를 신으로 믿고 마호메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슬람교가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메카에 한번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며 라마단과 쿠르반-하이트는 이들의 큰 명절이다. 게다가 매일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알라에게 기도 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으로 한다. 본 리서치 팀이

만난 체첸-잉구쉬인의 리더들도 자신을 강한 무슬림으로 표현했고 매일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했으며 몇몇은 우리에게도 무슬림이 되기를 권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체첸-잉구쉬인은 자신이 무슬림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계략이다. 사단의 간계는 이들을 속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즉, 온전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3) 선교전략 제언

20세기 초 역사상 아시아 선교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서구 선교사에 의한 한국선교였다. 당시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나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와 같은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개척사업을 하였고 더불어 의료, 교육, 구제 사업등과 같은 사회사업을 병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역시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전문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 대학설립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알마티시와 카라간다시에 있는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선호를 받고 있다. 알마티 KIMEP(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 알마티 KAU(Kazakh American University), 알마티 카자흐스탄 국립 대학교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카라간다 주립 대학교(Karaganda State University), 카라간다 의과 대학교(Karaganda Medical Academy), 카라간다 경제 대학교(Karaganda Economics and Financial University) 이상 6개 정도의 대학이 현재 교육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초기 선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독교 대학의 설립은 나라의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역사의 교훈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정책과 체제가 정비되는 것에 지도자 한 명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대학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에서 독립된 이후 여전히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를 개발하는 사회체제정비(State-building) 시기에 있다. 지성과 영성, 그리고 리더십을 겸비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현재 카자흐스탄이 당면한 시기와 상황에 필요한 선교전략이라 하겠다.

현재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에 기독교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노력이 있다.

대학설립을 위해서는 교수, 학생, 물질적 자원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들을 동원하고 이 사역을 추진할 일꾼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를 모델로 하는 KGU(Kazakhstan Global University,가칭)의 설립이 미비하게나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역을 더욱 창의적으로 돕고, 주재해 나갈 선교사의 동원이 시급하다.³⁵

2) 병원시설 충원

카자흐스탄에는 주요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의료시설과 병원들이 제대로 설립되지 않은 곳이 많다. 우리가 리서치 했던 지역인 우진아가쉬와 아드바살에 있는 의료시설도 몇 가지 장비만 갖춘 미비한 시설이며 규모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소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어서 큰 질병이나 수술 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많은 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의식 없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여 진료를 받을 때에도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픈 곳이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전반적인 의료 상황을 볼 때 병원 설립과 의료시설의 확충은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의료선교라는 전략이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여러 제3세계 선교에 효과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선교는 의사가 현지인의 질병을 고쳐주고 바로 돌아가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사역이 아니라 대학설립과 관련하여 의대와 병원을 설립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병원설립은 카자흐스탄의 의료 환경을 발전시킨다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부수적으로도 각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 등 사회 여러 방면으로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다

3) IT선교

최근 information technology 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IT 전문인이 선교에 쓰임 받고 있다. IT 선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혼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선교를 말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교전략이다. 일부에서는 IT 산업을 활용한 전문인 선교보다는 배고픔 문제가 우선이라며 IT 산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곤 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다르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래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매년 10%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왔고 그 결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과거와 많이 차이를 보인다. 물론 여전히 시골 지역에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직히 말하면 아스타나를 포함한 도시지역의 모습은 기아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어제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인간의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 받기 시작한 카자흐스탄의 도시 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요구는

³⁵ 기독교 대학 설립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05년 KFR 1기 보고서에서 참조할 것.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노출된 젊은이들은 IT 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이를 배우고 싶은 열망 또한 크다. 그러므로 IT 산업의 통로를 통해 현지인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면 자연스럽게 현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T 산업은 분명 선교의 마지막 세대인 현 선교인들이 감당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분야임이 확실하다.

(4) 요약

카자흐스탄은 급변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도시와 시골이 전혀 다르다. 구세대들과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도시사람들과 시골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 한 곳에서는 아직도 전통의상을 입고, 민족의 관습을 따르는가 하면 한 곳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양한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현재의 카자흐스탄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내 어느 곳이나 필요한 것은 학교와 병원의 설립, IT시설의 확충이다. 물론 지금도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보충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모델이 될 만한 학교와 건물이 생겨나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사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선교의 역사도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에 교회는 많이 개척되고 사역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크리스천 리더가 일어나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향해, 국민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한다. 초기 한국의 기독교를 생각해보라. 그 당시 기독교 대학과 병원이 세워지고 그 곳에서 인재가 배출되어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에도 기독교 대학, 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카자흐스탄과 북카프카즈 그리고 체첸-잉구쉬 종족에 대해 알아보았다.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의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국가이다. 면적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크며 최근 석유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땅에 살고 있는 체첸과 잉구쉬 종족은 원래 나흐족(Nakh)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민족이었으며 북카프카즈 땅에 거주하였다. 하지만 1944년 초 스탈린은 그들이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에게 호의적이었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 땅으로 강제이주 시켰고 그 과정에서 20만 명이 넘는 체첸-잉구쉬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민족적 아픔을 가진 체첸-잉구쉬 종족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북카프카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물론 북카프카즈 땅으로 가서 직접 체첸-잉구쉬 종족을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리서치 팀이 제안한 선교전략처럼 중앙아시아와 북카프카즈에 고루 퍼져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체첸-잉구쉬 종족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들의 문화가 이슬람문화로 획일화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종족 고유의 특성이 많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족 의식이 남아있고 여러 이유로 종족적 차원의 선교적 접근은 여전히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하게 집성촌을 이루어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문화가 종족적인 특색 때문에 구분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민족국가라는 카자흐스탄의 특징과 이슬람 문화에 동화된 온 소수민족들의 모습을 고려했을 때 지역적인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을 접근해야 할 필요성 역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그 배후에 있는 견고한 진과 그 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교전략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월간 카프카즈 저널』
황선우, 김선래 (2006), “북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체첸 공화국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마사유키, 『21세기 세계의 종교분쟁』
- 카자흐스탄 대사관, <http://www.mofat.go.kr>
이슬람 코리아, <http://www.islamkorea.com>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 <http://aap.or.kr/new/>